

올해 사회복지 분야 6824억원 투자

지난해보다 19.6% 증가... 사상 첫 20%대 진입

2013년 사회복지 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비 율
도 전 체 예 산	3,366,685	100
사회복지예산	682,417	20.27
▶ 기초생활보장	169,925	5.05
▶ 취약계층지원	71,511	2.12
▶ 보육·여가 및 여성	262,186	7.79
▶ 노인·청소년	120,921	3.59
▶ 노 동	13,457	0.40
▶ 보 훈	5,015	0.15
▶ 주 택	2,177	0.06
▶ 사회복지일반	2,593	0.08
▶ 보 건	34,632	1.03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6824억원을 투자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예산으로 도 전체 예산 3조 3666억원의 20.2%인 68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사회복지예산 5706억원보다 1118억원(19.6%)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제주도의 전체 예

산 3조763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18.5%였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1699억원, 취약계층(장애인) 지원 715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관련 2622억원, 노인·청소년 1210억원, 보건 346억원, 보훈·주택 206억원, 사회복지 일반 26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와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인상과

수급자 책정기준 완화에 따른 생계비 및 교육비, 의료비 지원, 수급자를 위한 취·창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가족 양육지원,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인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로는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공보육 인프라 확충,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 여성 경제활동복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노인·청소년 분야와 관련해서는 노인 소득보장 및 돌봄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 공역지원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육성 등이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귀포의료원을 분만 취약지역 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365억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따뜻한 복지, 일하는 복지, 건강한 복지를 모토로 도민이 함께 하고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식품나눔 동참하세요”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은 1월 24일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방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50만원 상당의 라면을 기탁했다.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 가구,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가구 등 겨울 나기에 어려운 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동절기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해 단전된 가구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수급자 신청 탈락 가구 ▲정신보건센터 중증정신질환 사례 관리자 ▲독거노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이다.

단순 체납이 아닌 생계곤란의 사유로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1회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요금을 지원한다.

수급자 탈락 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긴급 생계비를 지원키

로 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접수
시설 탐방·수화통역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개최
사랑나눔 푸드마켓 기부물품 증가

■ 오피니언 6면
칼럼·수기

■ 특집 7면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방안 세미나

■ 기획 8면
이웃사랑 자원봉사-존생봉사회
사랑의식물부-금강축산유통

올해 3월부터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가 변경됩니다

2013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의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 변경」 지침에 따라 제주도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에서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변경되고 기부식품 이용 기간도 1년으로 제한됩니다

▶ 이용 대상자 기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전체 이용자의 50% 범위 내)

▶ 이용 대상자 선정

-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가구

▶ 이용 방법

- 푸드뱅크 : 기부물품을 해당 가구에 직접 배달(월 1회 이상)
- 푸드마켓 : 이용자가 매장을 방문해 물품 선택 후 수령(월 1회, 3개 품목)

▶ 이용 기간 : 1년(2013. 3월 ~ 2014. 2월)

* 보건복지부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 변경」 지침

변경 전	변경 후(2013.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심	①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족구성원 수, 경제활동 여부, 학비 등을 감안해 상담 등을 통해 기부식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해당 푸드뱅크·마켓 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제공
기부식품제공기간 미설정	기부식품제공기간은 1년 단위(기준)로 변경하며, 상담 등을 통해 연장 가능함



“보육료 ·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2월 4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

2013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계획

구 분	보육료	양육수당
만 0세	39만4천원	20만원
만 1세	34만7천원	15만원
만 2세	28만6천원	10만원
만 3세	22만원	10만원
만 4세	22만원	10만원
만 5세	22만원	10만원

올 3월부터 만 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4일

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고 밝혔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2월에 사전 신청하면 3월분 보육료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의 보육료만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

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를 제출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농업인 확인서를 내야 한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직접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시 만 0세는 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 지원받는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로운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주관하고 지역사회 자원 통합관리와 경로당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경로당 취약분야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제주도는 센터 개소를 위해 지난해 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1월 중에 전담인력 6명을 확보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해 도내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시 개방하는 경로당이 91%로 가장 많았으며, 주 1~2회 개방 4.9%, 주 3~4회 개방 1.65 등의 순이었다.

또 전체 경로당 396개소 중 23%는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행되는 자활근로사업 중 깨끗한 동네 만들기인 근로유지형(180명), 사회복지시설 보조 인력 파견사업인 복지시설도우미(30명), 읍·면·동 및 복지부서 보조 인력인 복지도우미(30명) 등 3개 사업은 제주시가 직접 추진한다.

상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는 2월 중에 일자리수행기관과 참여자를 모집해 분야별로 참여인원을 확정 한 뒤 3월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일자리 유형은 ▲장애인복지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등 4가지다.

유형별 모집 인원은 장애인복지 727명, 행정도우미 59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4명,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 750명 등이다.

보수는 장애인복지는 월 27만3000원, 행정도우미 111만2000원, 안마사 파견사업 100만원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는 성별, 장애 등급별로 20만~50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행정시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근무는 주 5일, 급여는 월 53만~100만원 내외다.

제주시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 공동체 창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방침이다.

노인 · 장애인에 일자리 제공

道, 총 4616명 모집...참여기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노인 3076명과 장애인 15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 분야는 ▲환경지킴이, 도서관 사서 도우미, 교통안전지킴이 등 공익형 ▲노인 돌봄, 아동·청소년 지킴이 등 복지형 ▲예절교육강사, 보육교사 도우미 등 교육형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건물 청소 용역 등 시장형 ▲주유원, 간병인, 농가도우미 등 인력 파견형 등 5가지다.

보수는 공익·복지·교육형은 월 20만원(시간당 4860원 기준)이고 시장형은 사업 수익에 따라, 인력파견형은 수요처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지난해 7개월이던 일자리 참여기간은 올해 9개월로 늘어났다.

공익·복지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시장·인력파견형은 만 60세 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

제주시는 올해 44억60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662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근로능

뇌수막염 · 노인성 폐렴 무료 접종

제주특별자치도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오는 3월부터, 폐구균성 폐렴(노인성 폐렴) 접종은 오는 5월부터 무료로 시행한다.

뇌수막염 예방접종은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선택적 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접종받을 때마다 4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뇌수막염은 생후 15개월까지 4회(2·4·6·15개월) 접종을 받아야 95% 이상의 예방접종 효과가 있다.

폐구균성 폐렴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만 시행한다. 현재 예방접종 비용은 4만원이다. 1

회만 접종하면 된다. 뇌수막염은 5세 이하에서 발병할 경우 치사율이 6~7%에 이르며, 폐구균성 폐렴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감염성 질환 중 사망 원인 1위로 꼽힐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결핵, 파상풍, 수두 등 10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무료 접종이 시행되면 폐구균성 폐렴 예방접종률이 종전 3.4%에서 50% 이상 높아지고 뇌수막염 예방접종률은 감염병 퇴치가 가능한 95%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에서 ‘새터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달근 김치 500여포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정무제주지방합동행사출장소(지점장 강영필)은 최근 은

‘새터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달근 김치 500여포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12대를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1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차량 10대를 도입해 법정대수인 40대를 확보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10월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12대의 차량을 운행한 결과 연간 2만5446명(월 평균 2120명)이 이용해 2011년보다 이용자가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은 1~2급 지체·시각·뇌병변 장애인을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신부, 1~2급 도외 장애인 및 외국인 장애인 등이다.

사회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신청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2개부서로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복지대상자를 통합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통합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 10개 사업에 대한 공적자료 반영 및 방문조사, 읍·면·동 복지협의체와 연계한 어려운 가구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방침이다.

통합조사팀은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의 거동 불편자에 대한 복지제도 알리기 역할과 취약 가구 중 타기관 부가 서비스 희망자에 대한 신청 대행 처리도 추진하게 된다.

시설탐방

(63)제주특별자치도 수화통역센터

농아인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곳

전국 최초로 1997년 개소·통역·상담 등 서비스 제공
연중 24시간 운영·수화교육도 실시...“수화는 언어”

1월 29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한 칸에 설치된 영상전화를 통해 센터 직원과 농아인이 손짓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농아인이 상담을 의뢰해 온 것이다.

수화통역센터는 이처럼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화통역 서비스는 물론 법률, 민원 등 각종 생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짓으로 말하는 농아인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셈이다.

제주시 외도1동 제주시농아복지관 3층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화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규정에 의거해 설치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다.

제주도 수화통역센터가 문을 연 것은 지난 1997년 7월 26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소했다.

당시 3명에 불과했던 센터 직원은 현재 16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모두 수화통역사다.

혼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들에게 손짓으로 입과 귀가 되어 준다.

원상적인 수화통역뿐 아니라, 병원, 법원, 경찰서, 은행, 학교 등 정확한 생각과 감정 전달이 필요한 곳을 동행해 임상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준다.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필기·

실기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시험이 워낙 어려운 탓에 도내에서 이 자격증을 딴 사람은 고작 20이명에 불과하다.

수화통역센터 부현칠 사무국장은 “최근 수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로 없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협회가 운영하는 이 센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에 각각 분소를 두고 있다.

지난해 수화통역센터의 통역 서비스 건수는 1만건, 상담 건수는 500건에 달한다. 센터를 이용하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도내에는 약 4600명의 청각·언어

장애인이 살고 있다. 상담 내용은 취업 문제부터, 가정 문제, 경제적 문제, 의료 문제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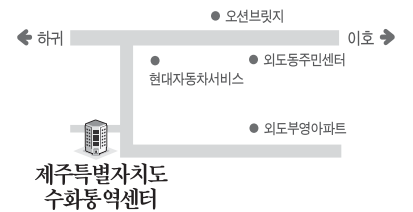
수화통역센터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 의료, 공과금 납부 돕기, 음식점 주문, 상담시미스 등은 물론 농아인들이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야간 수화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셈이다.

또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화교실’도 운영한다.

특히 제주로 여행을 온 국내·외 농아인들에게 렌터카, 숙박, 음식점 예약, 관광지 정보 등 각종 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관광수화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서 관광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화통역센터는

제주 유일하다.

구 국장은 “수화는 손으로 말하는 언어”라며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



지금까지 ‘시설탐방’ 취재에 협조해 주신 사회복지시설·단체에 감사드립니다. 다음호부터는 ‘제주사회복지 1호 시설’을 연재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본격 운영

도, 전담인력 5명 배치...서비스 시책 발굴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서비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주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촘촘한 복지행정을 펴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제주도는 1월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설치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2월부터 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지정 위탁 예정인 5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도민의 욕구 대응 및 지역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변화하는 수요와 공급 추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사회서비스 목록 및 내용을 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회서비스의 내용을 연구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원단이 운영되면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콘텐츠 및 단가 분석,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품질관리 기반형성 및 중산층으로의 시장 확대로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공기관의 영세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기능을 수행해 일자리 창출 및 제공기관의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 실태를 수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돼 형식적인 서비스 제공 및 부정 제공 실태를 파악해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제주시는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언어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기관 17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바우처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수행기관을 통해 미술, 음악치료, 심리운동치료, 수화지도, 독서지도, 언어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한다.

지원액은 최고 월22만원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월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평균소득 50% 이하는 월 4만원, 50% 초과 100% 이하는 월 6만원, 150% 이하는 월 8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은 월 8차례를 한도로 지원단가는 1시간에

2만7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대상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 장애, 시설입소아동 등)으로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아동이다.

언어발달 지원은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의 부모 모두가 감각적 장애(시·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인 이어야 한다.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 적용을 받는 시설

은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이다.

이들 시설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설치·개조하고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이 배치

된다. 또 이들 시설은 장애인에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을 공급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3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작업장과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새해 맞아 사회복지인 화합과 도약 다짐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계사년 신년인사회 개최
사회복지 자원봉사 명예의전당 등재자 시상 등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아 제주도내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현)는 1월 15일 오전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계사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사회복지시설·단체장 및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제주지역 사회복지계

의 산증인으로 한평생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강도아 전 제주보육원장에게 '제주 사회복지 공헌패'가 수여됐다.

강 전 원장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초대 및 2대 회장,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초대 관장, 제주YMCA 신협 이사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에 매진해 온 변명호 한울간병봉사회장에겐 '제주 사회복지 자원봉사 명예의전당 기념패'가 수여됐다.

변 회장은 10년 넘게 한울간병봉사회를 이끌며 양로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가 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1월 15일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계사년 사회복지인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애인 가구를 방문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평소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탐라교통봉사대 강옥선씨에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이 전달됐다.

아울러 도내 사회복지시설 분야별로 처음으로 문을 연 제주보육원, 제주양로원, 제주원광요양원, 평안전문요양원, 아가의 집, 제주시희망원 등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제주 사회복지 1호 시설' 현판을 증정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12 사업보고서 발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지난해 복지관 운영사업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2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사업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업보고서는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해 추진한 사업 소개 및 실적 및 복지관 홍보, 예산·결산보고, 복지관 이용자 소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복지관에 접수된 후원물품과 세입세출현황, 2013년 예산서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에게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통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복지관 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2월 중으로 제주도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유관기관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소/식/마/당

제장복, 장애인 생일축하 이벤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1월 24일 제주시 도두동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생일축하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제주문화바우처사업의 일환인 '당신은 빛나는 별입니다'의 지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이 3번째 생일축하 이벤트다.

한편 복지관은 여성 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벤엘, 제과·제빵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벤엘은 2월부터 한라원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도원은 또 감귤체험농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이 직접 감귤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의 감귤농장 체험과 감귤판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림청년회의소,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쌀 후원



제주시 한림청년회의소(회장 고동현)는 1월 22일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을 방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받은 쌀은 한림읍사무소(읍장 임종찬)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 1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소문난밥집 경로당'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순복음종합복지관 '아이스링크 체험'



제주순복음종합복지관은 1월 18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스링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오늘은 나도 김연아처럼'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맞아 학업에 지친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서로 친밀해지고 사회성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가정위탁지원센터, 길거리 홍보 캠페인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은 1월 18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일도점에서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알리기 위한 '제1회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센터 직원들은 지역주민과 하나로마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홍보물을 나눠주며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대해 홍보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나들이 행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1월 10일 학대피해 어르신들을 모시고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리에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방문하는 '새해 나들이'를 다녀왔다.

어르신들은 아쿠아리움에서 수족관을 관람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와 돌고래,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펭귄, 수달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수중발레, 돌고래쇼, 바다코끼리쇼 등 공연을 감상하는 등 모처럼 즐

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해 나들이에 이어 23일에는 서커스월드를 방문해 서커스단원들의 공중묘기와 오토바이쇼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소외받고 삶에 지친 피해대 어르신들의 치유와 자존감 향상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 기부물품 증가

지난해 1억9000여만원 접수...전년 대비 66% 증가
푸드마켓 월 평균 이용자 1544명...전국 최고수준



▲지난해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접수된 기부물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푸드마켓 내부 모습.

지난해 ‘사랑나눔 푸드마켓’의 기부물품 접수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일도2동 인근에 위치한 사랑나눔 푸드마켓은 식품 제조·유통업체나 단체, 개인 등으로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층 가구에 무료로 나눠주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랑나눔 푸드마켓에서 후원받은 기부물품 건수는 493건, 물품가액은 1억97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81건, 1억18

79만원과 비교해 건수로는 75.4%, 물품가액으로는 66.3% 증가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광역푸드뱅크로부터 1억6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았다.

푸드마켓을 찾는 이용자도 늘어났다.

지난해 푸드마켓 이용자는 1만8523명으로 전년에 비해 4% 증가했다.

월 평균 이용자는 1544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푸드마켓 126개소 중 서울지역을 제외하면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이어 경기도 파주시희망푸드마켓(1218명), 인천시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1163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CMS 자동이체를 통해 푸드마켓에 접수된 후원금은 2621만원으로 전년 2029만원보다 29% 늘었다.

후원금은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물품 구입비로 쓰인다.



초록우산 문화예술학교 겨울캠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는 1월 24~26일 2박 3일간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초록우산 문화예술학교 겨울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아동 단원들은 오케스트라 악기와 합창 연습을 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기자랑 시간 등을 가졌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초등학교 4학년 윤민주양은 “겨울 방학 때 별로 신나는 일이 없었는데, 초록우산문화예술학교 캠프가 열린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캠프에서 열심히 악기를 연습했더니 작년보다 실력이 향상된 것 같다”며 “더 연습해 언젠가 무대에도 서고 싶다”라고 말했다.

어승생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아이오름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1월 15일 한라산 어승생에서 학대 피해 아동전담그룹홈인 ‘아이오름’과 공동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승생을 찾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

으로 아동학대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홍보하고 아동권리 증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홍보하고 아동학대를 접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기관은 캠페인 참여자들과 함께 눈썰매타기 등 겨울놀이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년 역사 ‘한눈에’

‘걸어온 20년, 걸어갈 20년’ 책자 발간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의 2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기록한 ‘걸어온 20년, 걸어갈 20년’ 책자를 펴냈다.

이 책자는 총 265쪽 분량으로 사진 자료 110점과 시대별 주요환경 및 사업변

화 추이, 대상자별 사회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변화, 연도별 사업실적 정리, 주요 사업별 추진 내용, 복지관 활성화 노력 등을 담았다.

또 그동안 걸어온 20년의 역사를 기록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분석하고 복지관 신규사업 전망, ‘복지관에 바란다’라는 주제의 좌담회 내용 등이 수록됐다.

서귀포복지관, 이중언어지원 프로젝트 운영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흥기)은 이중언어지원 프로젝트인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모자나 모녀의 이중언어를 통해 아동의 인지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부모가 태어난 나라의 말과 문화를 배움으로써 정체성 발달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몽골, 베트남, 중국의 다문화가정 자녀(5~9세 또는 만 4~8세)로 40가정을 모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되며, 전래동화와 부모용 교안, 활동지, 단어카드 등을 지원한다.

또 강사를 초빙해 아동 양육의 중요성과 모아상호작용을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에 황의식씨 재선출

(사)전국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황의식)는 1월 29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제11차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에 현 황 회장을 재선출했다. 사무국장에는 최현철 하귀지역아동센터장, 서기엔 김희정 감산지역아동센터장, 감사엔 김건수 연동지역아동센터장, 문소연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장이 각각 선임됐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회장에 성진숙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회(지회장 성진숙)는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주지회장에 현 성 회장을 재선출했다.

총무에는 한재민 종달지역아동센터장, 서기에는 김형자 김녕지역아동센터장을, 지부 감사엔 김건수 연동지역아동센터장을 각각 선임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월 식품기탁자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쌀 200kg ▲김봉선씨=유기농배추 14개 ▲김성건씨=세탁세제 5개 ▲이동한씨=쌀 40kg ▲구암굴사제불자일동=쌀 55.2kg, 성금10만원 ▲금강축산유통=육류 144.1kg ▲김만덕기념사업회=쌀 2000kg ▲김치원=66kg ▲내고향제주4050=쌀 210kg ▲대명수산=생선 30상자 ▲더호텔=쌀 1000kg ▲빵따아모=빵 45봉 ▲산방미곡=떡국용떡 274.2kg ▲서문식품=두부 384모, 콩나물 20봉 ▲신농영농조합=양파지 60kg ▲아리아린이집=라면 960봉 ▲이든이네=멸치 4.5kg ▲이명구씨=쌀 1000kg ▲제주보리촌=보리빵 200봉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51봉 ▲장영준씨=제주사랑상품권 3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복지청소년과=제주사랑상품권 200만원 ▲제주은행 제주시청점=성금 2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1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610,000	61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970,000	970,000
복지사업후원	1,175,000	0
푸드마켓후원	3,545,000	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칼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다



김길웅

수필가·시인

쉽고 빠른 것을 좋아한다. 어려운 것, 파분한 것, 더딘 것에서 도망가려 한다.

디지털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일에 대한 호불호는 이제 극명해졌다. 특히 젊은이들은 지니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 쉬이 싫증을 느낀다. 얼마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기 일쑤란 애

기다. 옷가지에서 잡다한 용품들 심지어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희망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

슬럼프란 말을 자주 입에 올리는 것도 요즘 사람들의 취향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닌 듯하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 슬럼프를 경험하게 마련이다.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유능하게 일을 잘해 왔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것은 누구나 직면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실적도 없이 노상 지지부진한 사람에겐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올 리가 없다.

슬럼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와 있다. '지금 종사하고 있는 과업에 대해 일정한 실적

을 거둔 후 더 이상 그 기존 실적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슬럼프다.'라고.

유명 선수를 주변에서 많이 나오게끔 돼 있는 말이 슬럼프다. '그 선수, 요즘 슬럼프다.'

'슬럼프에 빠졌는지 전 같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다.' 등. 챔피언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겪는 슬럼프가 있다. 챔피언이 아닌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나도 이 방면, 이 분야에 챔피언이 됐구나 생각하고 다시 힘을 내야 하리라. 슬럼프가 자신을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희망'이다. 루신의 「고향」중에 나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희망이

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가슴에 울림으로 와닿는 말이 아닌가.

끝까지 가려는 의지가 중요

'언덕길이다. 한 발짝 한 발짝,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달린다. 한 달음에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다리의 근육이 허락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 오를수록 오르려는 정복예의 의지는 강해진다. 어찌됐든, 언젠가는 꼭대기에 다다른다. 그런 믿음이 있는 한 속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쿠르트 호크의 말이다.

모두 경험하는 일이다. 인생 길에 언덕길이 얼마나 많은가. 도처에 숨어 있다. 이 순간도 또 하나의 언덕길 위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 가파른 길을 뚝강대며 올라가는 숨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조금하계 서두른다. 고, 무조건 재계 걸음을 내딛는다고 능사는 아니다. 중도에서 주저앉아버린다면 무슨 낭패인가. 옛시조에서도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했다.

꼭대기에 가서 만나려던 사람, 그곳에 이르러 보려던 희망을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고 만다. 뜻을 이루는 것, 과업의 성취가 궁극의 목표일진대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다. 시종 흔들리지 않음, 끝까지 가려는 의지이다.

수기

“내 글과 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홍성모

지체장애 1급

삶. 우리는 삶이란 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이라는 목적을 안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나에게 행복이란 그저 한낱 단어에 불과했고, 삶 역시 홀로 울타리 밖에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어린양 같았다.

나의 삶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운 건 9년 전 일이다.

군 제대 후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중 학비마련을 위해 시작한 조금 위험한 일.

그런데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추락 사고였다. 99%의 사망 1%의 기적. 첫 번째 생과사의 기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손가락하나 움직일 수 없고, 감각조차 없어진 나무토막으로 변해버린 몸. 환경막까지 마비돼 숨조차 쉴 수 없어 인공

호흡기에 의지해야 되는 생명. 음식마저 코에 호수를 위까지 넣어 흡입하고, 심한 욕창으로 배에 생긴 인공 항문과 소변줄. 죽음과 맞바꾼 생명을 얻은 만큼 그 댓가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했다.

설상가상으로 법에 손길마저 외면해버린 산재보험 패소, 살고 싶은 마지막 남은 의지마저 무참히 밟혀졌다. 희망. 정녕 나에게 희망이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인걸까.

조금이나마 좋아지려 작은 희망을 안고 향한 서울 나들이. 두 번째 생과사의 기로. 심장마비. 나를 기다린 건 또다시 어두운 중환자실이었다. 그 후론 조금의 시간이지만 포근히 나를 감싸주던 햇빛과 내 얼굴을 어루만져주던 바람과도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다.

또다시 불거움이 뒤흔든 희망. 그렇게 희망이란 나에게만 사치였다.

우여곡절 끝에 중고 인공호흡기를 구입했고, 6년여만에 병원을 벗어나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역시 집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우울증과 조울증, 그리고 대인 기피증.

내 스스로 나를 점점 더 좁은 새장 안에 가두게 됐고, 내 안의 화를 어머니께 화풀이만 했다.

깊어만 가는 갈등의 골. 어머니는 나로 인해 육체적 고통과 그보다 더 힘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우리 모자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 속에 헤서는 안 되는 생각도 수없이 하게 됐다.

나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물에 빠진 사람과 똑 같다. 그런데 다시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나의 생명인 인공호흡기가 멈춰버리는 너무나 큰 사고. 우리 모자는 너무나 놀라 이성이라곤 찾을 수가 없었다. (중략) 응급실에서 병원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서야 정신이 들었고,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온몸이 땀에 젖어 녹초가 되어 작은 의지에 겨우 몸을 기댄 어머니 모습. 그런데 그 모습에서 난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다. (중략) 영원히 늙지 않고 내 옆에 있어 줄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 평생을 언제나처럼 나를 지켜 줄 거라 생각했었던 어머니. 그렇게 믿었던 어머니 섰는데, 처음으로 어머니의 나이 드신 모습을 보았다.

너무나 작은 어깨, 가는 팔과 다리, 어머니도 한 여자가였고, 한해 한해 세월도 드시고 계셨다. 어리석게도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저렇게 작고 연약한 몸으로 온몸이 부서져라 지금까지

나를 품으셨다는 걸. (중략) 그 사건 이후 나는 내가 만든 좁은 새장에서 나오기로 했다.

인공호흡기가 중고라 이번 사건처럼 언제 멈출지 모르고, 무엇보다 1년에 부품 교환비가 400~500만원이 든다는 걸 알았다. 기초 생활 수급자인 우리 모자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였고, 새 인공호흡기는 2천 2백만원. 꿈의 숫자였다.

그래서 먼저 세상에 내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복지관에서 후원 받은 컴퓨터를 통해 고개를 움직여 자음하나 모음하나 클릭하며 4일동안 사연을 써내려가 여러 기관에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 (중략)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단가. 그 말처럼 여러 사람들이 내 사연을 알게 됐고 다른 주요기관에서도 내 사연을 알게 됐다. 여러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그 손길 하나 하나가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 한계의 벽은 이제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빛이던 ‘사랑의 리퀘스트’. 시청과 춘강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도움으로 사랑의 리퀘스트에 신청하게 된 내 사연. 꿈일까. 꿈이면 깨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도 희망의 빛줄기가 있

다는 사실 만으로도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다. (중략) 방송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 주었고, 그토록 바라던 세상과의 소통도 할 수 있게 됐다. 꿈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로 인해 내 생활에도 생긴 너무도 큰 변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해 글과 시를 쓰기 시작했다. (중략) 나의 진단명은 평생 사람 구실 못한다는 것. 그렇다. 난 누구에 도움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내게 꿈이 생겼고 할 일이 생겼다. 더 이상 나는 홀로 울타리 밖에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어린양이 아니다.

삶이란 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이라는 목적을 안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 한명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시작된 삶의 스타트. 앞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쳐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설령 기어가더라도 현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현재가 중요하다고.

나는 오늘도 머리를 끄덕이면서 ㅅ, ㅈ, ㅊ 자음과 모음 한 자씩 모아 글을 써내려 가고 있다. 내 글과 시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 글은 지난 2003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 판정을 받은 지체장애 1급 홍성모씨(34)가 ‘사랑의 리퀘스트’ 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글을 ‘제주사회복지신문’에 보내온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긴 그는 이제 절망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편집자주>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보장방안 세미나

“장애인 웹근성 사용자 입장에서 준수해야”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과 (주)블루그리드는 22일 서울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웹 접근성 보장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는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해 모든 법인, 금융권 및 항공사 등 사용자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가 접근성 준수의 주요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과 (주)블루그리드는 22일 서울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웹 접근성 보장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들이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 한다. 특히 이러한 웹 접근성 준수는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아가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은 강조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실제 웹 접근성 준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금융권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평가방법은 스트린리더를 이용한 시각장애인과 키보드만으로 이용가능한 지체장애인의 접근 가능성을 대상으로 ▲메인페이지 ‘공지사항 찾아

읽어보기’ ▲정보 확인 ‘CEO 이름’, ‘연혁’, ‘본점주소 찾아보기’ ▲게시판이용 ‘게시물 찾아 읽어보기’ ▲자료다운 ‘자료 다운로드 해보기’ ▲검색 ‘콘텐츠 링크, 지정, 통합검색’ 등 부분이 평가 항목으로 설정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평가 항목 중 실제로 장애인 접근이 가능했던 성공 과업은 58%로 나타났다. 메인페이지 접근성

체 텍스트 미제공과 키보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라며 “또한 반복 영역 건너뛰기가 미제공 되거나 동작 안하는 사례들로 다수 발견돼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 장애인들이 여러 금융기관을 웹상에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장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손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로그리드 웹접근성 연구소 심재호 팀장은 웹사이트 제작 및 관리 담당자들에게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심 팀장은 “웹 사이트 제작

것”이라며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왔던 그동안의 웹사이트 현실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훈 팀장은 실제 사례를 통해 웹 접근성 실태를 지적했다.

이 팀장은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시각장애로 잔존시력이 남아있지 않아 공인인증서 이용 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됐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

이 팀장은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들이 스크린리더나 키보드, 조이스틱 등을 이용해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라며 “웹 접근성이 준수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보 소외계층이 금융 업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한 법적 준수를 위해서 또는 기술적 혁신을 위해서 웹 접근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터넷 상의 모든 콘텐츠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웰페어뉴스(www.welfarenews.net) 제공〉

금융권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웹 접근성 여전히 불편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손쉽게 정보공유할 수 있어야”

은 61%, 정보 확인 54%, 게시판이용 57%, 자료다운 55%, 정보검색 54% 등으로 성공률이 나타났다.

접근이 불가능 했던 주요 사례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본문 바로가기와 대체 텍스트, 서식 레이블, 플래시, 새창 열기 등에서 웹 사이트 이용에 어려운 항목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키보드 접근성 제한이 주요 제한 사례로 조사됐다.

김 팀장은 “실태조사로 나타난 은행권 웹 사이트들의 정보 접근성의 주요 위반 사례는 대

여인들의 입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개선 과정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팀장은 “웹 사이트 이용에서 가장 싫은 말이 ‘설치를 원하면 여기를 클릭하라’는 말이다. 실제 5분간의 사용을 위해 몇 시간 동안 설치를 찾아다녀야 한다”며 “홈페이지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이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웹이란 장애에 구애

담당자들은 비장애인의 경험 상 시각에 중심된 웹 사이트를 만들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화면에서 마우스를 동시에 이동해 사용하는 웹 사이트를 제작하게 된다”며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경우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소리로 세상을 듣고 촉각으로 느낀다. 더불어 지체장애인들은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사용방법에서의 차이를 이야기했다.

이어 “이러한 차이가 웹 접근성에서의 차별을 만드는



연중 기획

'이웃사랑 자원봉사'

▶ (12)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샘봉사회

“마음을 나누면 행복이 커집니다”

매주 사회복지시설 찾아 봉사활동...공직사회 '모범'

어려운 이웃 위해 푸드마켓에도 물품 등지속 후원

“자원봉사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이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 행복이 커진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샘봉사회 강은숙(41) 회장이 그동안 자원봉사의 길을 걸으면서 느낀 소회다.

매주 토요일이면 제주도청 정문 앞에 한무리의 사람들이 모인다.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나이도, 성별도 다양하다. 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인 이유는 자원봉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다. 이들은 제주도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존샘봉사회 회원들이다.

‘존샘’은 작지만 꾸준하며, 자상하고 섬세한 마음 씀씀이

를 일컫는 제주어다. 봉사회 회원들은 주말을 이용해 제주양로원과 제주요양원, 아가의 집, 미타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식사 수발을 비롯해 화장실 청소, 주방일손 돕기, 풀베기, 화단정비 등 각종 굵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아가의 집에서는 텃밭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봉사활동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봉사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느낀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고추장과 김장김치를 만들어 나눠주는가 하면 사랑의 빵 만들기, 정성 가득한 맛있는 밥상차려 드리기, 병무경을 활용한 머리끈만들기, 신명나는 어울림마당을 통해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돕고 있다. 이른바 ‘어르신들의 마음 속 주름 활짝 펴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봉사활동들이다.

지난 2007년 5월 창단한 존샘봉사회가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봉사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회원들의 남다른 관심과 더불어 강 회장의 공이 컸다.

공직에 입문하기 훨씬 전인 1993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강 회장은 존샘봉사회 창단을 이끈 주역으로 지금까지 5년 넘게 회장직을 맡아 봉사에게 누구보다 솔선수범 앞장서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존샘봉사회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김장김치를 담그는 모습.

왔다. 창단 당시 29명에 불과했던 회원 수는 현재 80여명으로 늘었다.

존샘봉사회는 ‘사랑나눔 푸드마켓’과도 인연이 깊다. 지난 2009년 6월 푸드마켓 개소 이후 매년 이웃돕기 바자회 개최 등을 통해 모은 생필품을 기탁하는 것은 물론 고추장과 김장김치를 만들어 지원해 주고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과 시상금을 푸드마켓에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강 회장이 가교 역할을 했다.

강 회장은 “봉사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길”이라며 “마음을 나누다보면 저절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사랑의식품을 이웃과 함께'

▶ (8)주금강축산유통 안성 대표



▲지난 2004년부터 10년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육류를 기부해온 (주)금강축산유통 안성 대표.

10년째 식품기부 통해 사랑나눔 실천

푸드마켓에 매주 육류 기부...총 7700만원 어치

식품나눔 전도사 역할...자원봉사에도 적극 참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10년째 식품기부를 통해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이가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금강축산유통을 운영하는 안성 대표(50)가 그 주인공.

제주시 도두1동에서 위치한 (주)금강축산유통은 제주는 물론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축산물 유통업체다.

지난 1998년 문을 연 (주)금강축산유통은 제주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입육 등 육류를 전국 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건실한 업체다. 현재 거래처만 205곳이 넘는다.

오로지 사업에만 몰두했던 안 대표가 식품기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5월.

길을 가다 우연히 ‘푸드뱅크’라고 적힌 차량을 보고 연락을 해 인연을 맺게 된 것.

‘푸드뱅크’란 곳이 식품 제

조·유통업체나 개인 등으로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장이란 걸 알게 된 안 대표는 그 때부터 제주도광역푸드뱅크에 매주 정기적으로 육류를 기부했다. 2009년 6월까지 5년여간 2400만원 상당의 육류를 기탁했다.

그해 6월 제주시 문예회관 인근에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문을 열게 되자 그는 푸드마켓을 통해 식품기부를 이어갔다.

푸드마켓 역시 푸드뱅크와 마찬가지로 기부식품을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인 데다 푸드마켓 개소 초기에 탁월 기부물품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후 안 대표는 푸드마켓에 매주 2회 정기적으로 육류를 기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푸

드뱅크와 푸드마켓에 기탁한 육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700만원에 달한다.

푸드마켓 운영위원이기도 한 그는 푸드마켓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지문을 아끼지 않는가 하면 직접 기부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등 식품나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눔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있는 의미 있는 것”라고 말하는 그는 천상 ‘나눔 실천가’이다.

그는 자원봉사에도 관심이 많다. 삼다라이온스클럽 회장인 그는 회원들과 함께 집수리 봉사는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늘 감사하고 기쁘다”며 “티끌의 나눔도, 아주 작은 베품도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나눔의 씨앗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